德王府本 元朝秘史攷

金　　芳　　漢*

〔1〕

本稿는 Mongγol udqa-yin yuwan ulus-un niγča tobčiy-a(蒙文元朝秘史)에 관한 研究이다. 本書의 앞 表紙에는 위의 書名과함께 Mongγol-un udqa soyol-i naribčilan niγtalaqu qoriya-ača ukiyabai(蒙古文化研究院刊行)이라는 記錄이 있고 뒤 表紙에는 다음과 같이 出版年月日과 出版所 改正者 등에 관한 記錄이있다.

Boγda činggis qaγan-u doloγan ǰaγun γučin dabutuγar on-u yisün sara-yin nigen-e darumalabai. (聖成吉思汗735年 9月 1日 印刷)
ǰalaraγuluγsan anu. quriyan daruγa idečin.
(改正者는 編輯長 idečin)
určiγulγsan anu. ksiγbatu
(編譯者는, ksiγbatu)
darumalaγsan anu. mongγol-un udqa soyol-i naribčilan niγtalaqu qoriy-a.
(印刷者는, 蒙古文化研究院)
darqaγan yabuγulqu anu. mongγol-un udqa soyol-i naribčilan niγtalaqu qoriy-a.
(펴낸 것은, 蒙古文化研究院)

特히 本書는 qudalduqu bičig busu bolai (非賣本)으로 되어있다. 또한

* 서울大學校 敎授(言語學 專攻)

Keblel-ün erge bui tula dayuriyin darumalabasu ergeügei ǰimelemüi.
(版權이 있기 때문에 模倣印刷하면 반드시 처벌함)

와 같이 出版所有 模倣印刷不許를 明記하고 있다.

出版年月日에 관해서 보면 「聖成吉思汗」이라는 年號는 이것을 省略해서 「成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成吉思汗이 1204年 外蒙古의 Onon河邊에서 即位했다는 說을 認定하고 그 해부터 起算하여 735年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西紀 1938年이 되는 셈이다. 參考로 日本帝國의 주선으로 수립된 蒙古連合自治政府의 創立宣言이 發表된 것이 成紀 734(1937)이며 그前에는 蒙古連盟自治政府라는 것이 存在했다.

蒙古文化硏究院이 어떤 機能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떻게 形成된 것인지 筆者로서는 알 수 없으나 蒙文元朝秘史가 刊行된 1938年頃과 蒙古連合自治政府가 樹立된 1937年以後의 內蒙古에 있어서의 文化政策의 一面을 간단히 살펴볼 必要가 있다. 1932年부터 日本이 積極的으로 中國大陸에 進出하며 內·東部蒙古人들은 그들의 獨立을 위하여 日本을 支持했다. 日本은 特히 그들이 敎育을 받고싶어하는 熱望을 充足시켜줌으로써 蒙古人들의 文化가 中國文化에 侵蝕되는 것을 막을 對策을 約束했다. 그리하여 當初는 日本軍占領地域에서 中國의 言語와 文化的 影響을 弱化시키고 蒙古語와 그 出版物 普及 등으로 蒙古的 風潮에 대한 强力한 支援이 認定되었다. 이렇게 해서 內蒙古에서는 먼저 德王이 蒙古語書籍을 위한 出版所 하나와 印刷所 하나를 設立했다. 德王의 秘書인 촉바다라하에 의해서 經營된 이 內蒙古出版所는 적어도 日本의 影響下에 成立된 施設의 하나이었다. 이 出版社와 印刷所는 改善된 敎育制度의 덕택으로 蒙古人의 글을 읽을 수 있는 人口가 增大하기 때문에 여기 맞추어서 蒙古語書籍의 出版에 格別한 힘을 기울이게 된다. 日本의 政治的 宣傳物 以外에 蒙古의 民族運動, 行政, 文法, 衛生등에 관한 많은 書籍이

나타났다. 이 中에서도 特히 力點을 둔 것이 옛 蒙古의 歷史書籍의 刊行이었다. 筆者가 前年 發表한 「德王府本 Altan Tobči(黃金史)攷」(東洋學報 第4輯, 1974, pp. 127-171)도 이러한 환경에서 出版된 蒙古의 古史籍의 하나로 생각된다. 또한 本稿에서 考察하려는 蒙文元朝秘史도 이러한 점에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德王府本 黃金史(1937)와 德王府本 元朝秘史(1938)의 差異는 前者의 出版所가 terigün noyan-u urdun-u niγtalan nabčitaqu ger-ün darumal-un γaǰar(總理府(?)硏究院印刷所)로 위에 말한 德王이 設立한 印刷所로 생각되는 것인데 대해서 後者는 蒙古文化硏究院 刊行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혹은 前者의 硏究院이라 것이 後者의 蒙古文化硏究院과 同一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되나 이것을 斷定할만한 資料가 없다.

本書의 編輯長 idečin은 中華民國 36年(1947)에 出版된 蒙古語教課書인 國立邊彊文化教育舘編, 教育部刊行인 「國文·蒙文 對照初級小學語文常識課本」(全九册)에 보이는 編譯委員會 委員이며 또 編譯者인 蒙古人으로 보이는 「伊德欽」과 同一人이 아닐까? 蒙古語로는 i twčin으로 表記되어 있는데 이것은 中國式으로 姓과 이름을 分離해서 表記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 「伊德欽」은 原蒙古姓名의 發音을 漢字로 表記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伊德欽」은 原蒙古姓名으로는 idwčin이며 그것과 蒙文元朝秘史의 idečin은 偶然의 一致일까?

筆者는 前年 日本學者 江 實先生(岡山大學教授)의 好意로 同教授所藏인 本書와 前揭 德王府本 Altan Tobči를 複寫해서 볼 수 있는 機會를 얻었다. 筆者가 本稿에서 德王府本 元朝秘史라 부른 것도 便宜上 先生의 호칭에 따른 것이다. 江 實先生에게 깊은 謝意를 表한다. 筆者는 처음 이 册의 複寫를 보았을 때, 비상한 興味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위에서도 본듯이 「改正者」와 「編譯者」가 있고 이것은 原元朝秘史를 蒙古語로 翻譯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難解한 句節을 어떠한 蒙

古語로 解釋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本稿에서도 考察되는 바와 같이 蒙古人 自身이 原元朝秘史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一例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德王府本 元朝秘史와 四部叢刊本 元朝秘史를 對照해보며 그 差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의 一面을 보려는데 目的이 있다. 그리고 本稿에서는 便宜上 德王府本 元朝秘史를 「德元」으로 또 四部叢刊本 元朝秘史는 「四元」으로 略稱하기로 한다.

〔2〕

Yuwan ulus-un niγuča tobčiy-a, nigedüger bülüg

〔1〕 tegedü tengri börte čino-a kemekü kümün-i törögülügsen-ü qoyin-a. γou-a maral kemekü ökin-i gergei bolγan abču tenggis neretü dalai-yi getülen. onon neretü γool-un ekin-dü büküi buqan qaldun-a neretü aγula-in übür-tü kürčü nutuγlan saγubai, nigen köbegün törögsen-i batučaγan nemebei. batučaγan-u köbegün tamačaγ. tegün-ü köbegün qorča mergen. tegün-ü köbegün aγujim boγorol. tegün-ü köbegün soli γalǰiγu. tegünü köbegün yeke nidun. tegün-ü köbegün samsoči. tegün-ü köbegün qaraču. tegün-ü köbegün börǰigeti mergen börǰigeti mergen-ü gergei mongγolǰin γou-a-ača törögsen köbegün torγolǰin bayan buyu. torγalǰin bayan-u gergei boroγčin γou-a mün buyu. tegün-dür nigen ger-ün boγol boroltai kemekü bui. basa qoyar külüg aγtan mori bui. nigen-i tayar mori kemeküi. nigen-i boro mori kemeküi boroγčin γou-a-ača qoyar köbegün töröčüküi. nigen-ü nere-yi duu-a soqor kemekü. nigen-ü nere-yi dobu mergen kemekü. duu-a soqor bolbasu manglai

dumda-ban γaγča nidutai. γurban negüri-in γaǰar tegei yoγum-yi taniǰu čidamui. nigen edür duu-a soyor. degüü dobu mergen-lüge burqan aγulan-a udqui-dur duu-a soqor aγula-in deger-e-eče tünggelig neretü γool-un kübege-ber nigen bülüg

元 朝 秘 史 第一卷

上天, 뵐테 치노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태어난 뒤, 고우라 마랄이라는 女子를 아내로 삼아 대리고 텡기스라는 大湖를 넘어, 오논이라는 江源에 있는 부한 할둔아라는 山 기슭에 이르러 遊牧하며 살았다. 한 아들이 태어난 것을 바투차간이라고 부른다[1] 바투차간의 아들은 타미착, 그의 아들은 홀차 멜겐, 그의 아들은 아구친 보고롤, 그의 아들은 소리갈지구, 그의 아들은 에케 니둔, 그의 아들은 삼소치, 그의 아들은 하라츄, 그의 아들은 뵐지게티 멸겐, 뵐지게티 멸겐의 妻 몽골진 고우아에서 태어난 아들이 톨갈진 바얀이다. 톨갈진 바얀의 妻가 보르그친 고우아이다. 그에게는 한 家奴가 있고 보롤타이라고 부른다. 또 두 騙馬가 있었다. 하나는 타얄 말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보로 말이라고 불렀다. 보로그친 고우아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다. 한 〔아들의〕 이름을 두아소홀이라고 부르며 한 〔아들의〕이름은 도부 멜겐이라고 부른다. 두아소홀은 이마 가운데 외 눈이 있었다. 三日行程의 〔먼〕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2] 어느날 두아 소홀은 동생 도부 멜겐과더불어 불한山에 갔는데, 두아소홀은 山 위에서 퉁게릭이라는 이름의 江邊으로 一群의

(1) 「四元」에서 여기該當하는 句節을 보면 다음과 같다. činggis qahan-u huǰa'ur. de'ere tenggeri-eče töregsen börte čino aǰu'u. gergei inu qo'ai maɹal aǰi'ai. tenggis ketülǰü irebe, onan müren-nü teri'ün-e burqan qaldun-na nunturlaǰu töregsen batačiqan aju'u(成吉思行의 根原 上天에서 태어난 蒼白한 늑대가 있었다. 그의 妻는 흰 암사슴이었다. 텡기스는 건너 왔다. 오난江의 源流 불한 할둔에 遊牧하여 태어난 바타

치한이 있었다). 여기서 兩者의 큰 差異는 「四元」의 蒼白한 늑대(börte čino)와 흰 암사슴(qo'ai maral)을 人格化하여 「德元」에서는 뵐테 치노 아라는 사람과 고우아 마랄이라는 女子로 고쳐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原始的인 totemism을 現實的인 人物로 表現한 것으로서 成吉思行의 遠祖를 人間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聖成吉思行의 始祖를 totem으로 보던 것을 故意로 改作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德元」에서 注目되는 것은 山名, 江名에서 固有한 名稱 뒤에 山이면 山, 江이면 江임을 明確히 하고 있다. 여기 대해서 「四元」에서는 다만 固有名稱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實際로 읽을 때, 이것이 어떤 固有名詞인지 容易하게 알기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補充한 것으로서 생각된다. 例컨데 「四元」에서 「텡기스를 건너」를 「德元」에서는 「텡기스라는 大湖를 건너」로 表現하고 있어서 그 固有名詞가 어떤 것인지를 보다 容易하게 알 수 있다.

(2) 「四元」 γurban negürid γaǰar-a qaraqu bülege. 「德元」 γurban negüri-in γaǰar-taki yaγum-yi taniǰu čidamui. γurban negürid γajar에 대한 「四元」의 傍譯을 보면 「三程地」로서 이것은 「사흘걸려서 갈만한 먼 距離에 있는 곳」을 意味하며 이것을 意譯한 것이 「四元」의 漢譯이다(望見三程遠地的勢物). 사실 γurban negürid γaǰar은 特殊한 蒙古語表現이며 이 句節 自體만으로서는 뜻을 理解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德元」에서는 γurban negüri-in γaǰar-taki yarum-yi와 같이 補充說明함으로써 三日行程의 〔먼〕곳에 있을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을 보다 分明히 表現하고 있다.

上揭 「德元」의 原文을 보면 「德元」의 言語가 規範的인 文語蒙古語임을 곧 알 수 있다. 다만 口語的 要素가 약간 보일따름이다. 一例를 들면 現在形 語尾로서 -m가 보인다든지 또는 動詞 bü-의 Second past인 (bülüge〉)bile등이 散見될 따름이다. 그러나 여기 「德元」의 全卷을 통해

서 가장 注目되는 形態的 特徵의 하나가 있다. 그것은 töröčü-, (p. 1, 8) ügčü- (p. 2), yadaγuraču- (p. 3), medečü- (p. 4), bolču- (p. 6, 7, 8), kemečü-(p. 7, 9), irečü- (p. 7), nereyidčü- (p. 8)등과 같은 例에서 보이는 動詞語幹에 添加되는 -ču-/-čü-이다. 이것은 口語의 Verba intensiva -tši-와 關係가 있어 보인다(N. Poppe: Khalkha-Mongolische Grammatik, Wiesbaden, 1951, p. 51).

[2] negüdel-ün arad usun-u eyeberkü-ber[1] yabuqu-yi üǰiged[2] aya[3] ügüler-ün. tere nigen bülüg negüdel. arad-un emünegei qara terge-in emün-e büküi nigen ökin masi yisürgeg[4] bayinam. gerbe gatam ügei bolbasu čimadur gergei bolγan absuγai genem dobu mergen-i udduγulǰu üǰegülbesü ene ökin-ü ner-e along γou-a gememü. törögsen inu üǰisbölen-ng[5] qatam γaruγsan ügei aǰiγu. ene nigen sürüg arad bolbasu qoritai mergen-ü nigen ayimaγ bolbai. angqa-daγan golan barγu-in γaǰar-un eǰen gemegtemüi barγutai mergen-dür nigen ökin bui ner-e inu barγuǰin γou-a gememü. qolitu madun ayimaγ-un nuǰan qolirtai mergen-dür qadun bolγan ügčüküi. ayilaγusan neretü γaǰar-dur enekü along γou-a neretü ötin-i töröčüküi.[6] qolirtai mergen bosuγan učir anu qolitu madun γaǰar-un bolaγa kiged köke tarbaγa ǰerge-in küdege-in yaγum-a-u učir-a büged.[6] öber-iyen tarbaγa čukiǰu ülü bolqu-in tula tarui burqan aγulan-a ǰerlog yaγum-a masi olan gemekü-yi sonuγad büküli ger-iyen abču irečüküi. γaγčakü burqan aγulan-a-in eǰen-ü ner-e sarabaǰan gemekü tula. deyin kü qolisar ubuγtan gemečüküi. dobu mergen along γou-a-yi gergei bolγan abuγsan učir anu ene metü bolai.[7] along γou-a-yi abuγsan qoyin-a qoyar köbegün töröbei. nigen-ü ner-e-yi bigünetei nigen-ü ner-e-yi biligünetei gemebei. dobu mergen-ü aqa dou-a soqor eǰen törben köbegün bui büged. qamtu saγun büküi-dür dou-a soqor

ükübei.

移住民들이 [江]물 따라(?)가는 것을 보고 兄이 말하기를 「저 一群의 移住民들 앞 검은 車 앞에 있는 한 女子가 매우 아름답다. 혹 男便이 없으면 네게 아내로 삼아 데리고 가자」고 말했다. 도부 멜겐을 보내서 본즉 이 女子의 이름은 아롱 고우아라고 한다. 더어남이 아름답고 男便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一群의 人民은 호리타이 멜겐의 한 部族이다. 그 始祖는 호란 발구의 地方의 君主라고 한다. 발구타이 멜겐에게 한 딸이 있다. 그〔녀〕는 발구진 고우아라고 한다. 후리투 마둔 部族의 首領인 호릴타이 멜겐에게 王妃〔로〕 삼아 주었다. 아이락산이라는 곳에서 이 아롱 고우아라는 이름의 딸을 났다. 〔 〕 도부 멜겐이 아롱 고우아을 妻로 삼은 연유는 이와 같다. 아롱 고우아를 얻은 뒤 두 아들이 태어났다. 한〔아이〕의 이름은 비규네테이, 〔또〕 한 〔아이의〕 이름은 비리규네테이라고 했다. 도부 멜겐의 兄 도우아 소홀君主는 네 아들이 있었다. 함께 살다가 도우아 소홀이 죽었다.

(1) usun-u eyeberkü-ber: 「四元」에는 Tüngelig γorohan huru'u(傍譯은 「水名 山河 順」 그리고 漢譯은 「統格黎名字的河邊」)으로 huru'u는 다서 Haenisch에 의하면 mit dem Storm, stormabwärts (Wörterbuch zu Manghol un Ninca Tobca'an, Leipzig, p. 79). 「德元」의 eyeberkü는 意味不明이나 「四元」에 따라 「[江]물 따라」로 飜譯해 두었다.

(2) üjiged: (Mo.) üjeged. 이 例는 e의 i로의 變化라 하겠는데 이런 變化傾向은 Altan Tobŏi나 Ordos本 蒙古源流에도 나타난다. Mostaert는 이것을 Ordes方言의 實際發音을 反映하는 것으로 본 적이 있다. (拙稿, Altan Tobči硏究, 東亞文化 第11輯 p. 170).

(3) aya는 aqa의 誤記인듯.

(4) yisüreg: 不明. 「四元」에는 sayin.

(5) üjisbüleng: [Mo.] üjesbüleng. Cf. (2).

(6—7) 「四元」(§9)에서 該當句節은 다음과 같다.

horilartai mergen horitumad-un γaǰar-tur-yan buluγan keremün göregeteï γaǰar-yan hoγilalduǰu maγulalduǰu horilar oboγtu bolǰu burhan haldun-u göregesün görügüli sayitu γaǰar sayin kegen burhan haldun-u eǰed burban bosqaγsan šinci bayan uryanghai-dur negüǰü ayisun aǰuγu. hori tumad-un horilartaï mergen-ü ökin ariγ usun-a förögsen alan γo'a-yi tende γuyuǰu dobun mergen-ü abuγsan yosun teyimü(호리랄타이 멜겐은 호리 투마드의 땅에서 貂鼠, 青鼠, 짐승이 있는 곳을 서로 禁約하고 근심하여 호리랄姓이 되고 「불한 할둔의 짐승을 잡기 좋은 곳이 좋다」고 말하고 불한 할둔의 主人 불한 보스흐-그산, 신치바안 울앙하이에서 移動해 갔다. 호리 투마드의 호리랄타이 멜겐의 딸로서 아직 우순에서 태어난 아란 고아를 거기서 찾아 도분 멜겐을 얻은 까닭은 이와 같다.)

이 句節을 「德元」에서는 다음과 같이 飜案하고 있다(上揭 譯文中에서는 이 句節을 飜譯하지 않고 괄호 속에 넣두었다). 호릴타이 멜겐이 이러난 연유는 호리투마둔 땅의 貂鼠와 푸른 탈바가 jerge-in küdege-in yaγuma-u učir-a büged (意味不明), 스스로 탈바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불한 山에 野生物이 매우 많다고 말한 것을 듣고 büküli ger-iyen abču irčüküi(意味不明). γarčakü(意味不明) 불한山의 主人의 이름 사라바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호리살姓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飜案에서로 오히려 理解하기 어려운 句節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까지 나온 固有名詞인 人名表記에는 다음과 같이 많은 差異가 보인다. 괄호로 表示한 것은 「四元」의 人名임을 表示한다.

börte čino-a+γou-a maral
[börte čino] [qo'ai maral]

batučaγan
[batačiqan]

tamačaγ
[tamača]

qorča mergen
[qoričar megreen]

arujin bororul
[a'ujan boro'ul]

sai γaljiγu
[sai gača'u]

yeke nidun
[yeke nidun]

sem soci
[sem soci]

qaraču
[qarču]

börγjiqeti mergen + mongγoljin γou-a
[borjigtai mergen] [mongholjin qo'a]

torγaljin baycn + boroγcin γou-a
[torqoljin bayan] [borohčin qo'a]

dou-a soqor [duwa soqor]
dobu mergen [dobun mergen]

[3] tegün-ü dörben köbegün abaγa ejige dobu mergen-i qamiy-a ügei sanaǰu gegeǰü orkiγud dobu mergen-eče öber-e oboγ-tan bolčuqui. qoyi-n-a nigen edür dobu mergen doγosun öndür gemekü aγulan-a gürugeler-e udduγad oi siγui-in dotor-a. uriyangqai ayimaγ-un kümün-lige učiγarsan-dur tendegen-e γurban nasutai boγu-yi alaγud qabisun mörü gedüsü dotoir-siraǰu büküi-dür. dobu-mergen tegünče miq-a-yi γuyuγsan-dur. tedeger kümün anu boγu-in doloγai arasu be aγusgai[1] büger-e-ečė bosu miqa-yi čüm dobu mergen-dür ügbe. dobu mergen uljalγsan miqa-ban ačiju qariqu jam-du nigen yataγuu kümün köbegün-iyen taγaγulǰu yabuqu-yi üčirebei. dobu mergen tegün-eče či ali γajar-un kümün bui. qemen asaγuγsan-dur.

tere kümün ügüler-ün. bi maγali bayaγud oboγtai kümün bile. edüqe yadaγuračuqui. či tere miqa-ban nadur üggügtün. bi ene köbegün-iyen čimadur kürgejü öggüy-a. či taγaγulun yabuγtun gemebe. dobu mergen boγu-in miqa-u qoyidu nigen kül-i ögčü tegün-ü köbegün-i araljin abuγad ger-tegen abačiju jaruča bolγabai.

dobu mergen ütügsen-ü qoyina. tegün-ü gergei along γou-a. basa γurban köbegün töröḷei. nigen-ü ner-e baγu qadagi. nigen-ü ner-e buγu saljiru. nigen-ü ner-e bodančir buyu. dobu mergen amitu büküi-dür törögsen biligünetei. bigünetei qoyar köbegün inu sem-iyer gelelčir-ür bidan-u eke-dür ger uyira-in aq-a degüü ügei er-e nökür basa ügei. edüge ene γurban köbegün-i törögsen anu bidan-u ger-dür γaγča maγali bayaγud

그 네 아들은 叔父인 도부 멜겐을 關係가 없다고 (친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를〕 버리고 도부 멜겐과 다른 姓氏가 되었다. 뒤에 어느날 도부 멜겐이 도고순 원둘이라는 山에 사냥가서 숲속에서 우리양하이部族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새살〔짜리〕 사슴을 죽여서 肋骨, 등, 배, 臟腑를 굽고 있었고 도부 멜겐은 그들에게 고기를 請했다. 그 사람은 사슴의 頭皮와 肺臟, 腎臟 以外의 모든 고기를 모두 도부 멜겐에게 주었다. 도부 멜겐은 얻은 고기를 〔말에〕싣고 돌아오는 길에 한 가난한 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도부 멜겐은 그에게 「당신은 어느 곳 사람이냐?」고 물으매, 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마가리 바야구드〔라는〕姓의 사람이다. 지금 궁하다. 당신 그 고기를 내게 주시요. 나는 이 아이를 당신에게 보내 드리지요」 도부 멜겐은 사슴의 고기의 뒷 다리 하나를 주고 그 아이와 바꿔 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使喚으로 삼았다.

도부 멜겐이 죽은뒤, 그의 妻 아롱 고우아는 또 세 아이를 났다. 한

〔아이〕의 이름은 부구 하다기, 한 〔아이〕의 이름은 부구 살지구, 한 〔아이〕의 이름은 도단칠이다. 도부 멜겐이 살아 있을 때 난 비리규네테이, 비균네테이 두 아이는 슬며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에게는 가까운 兄弟(「四元」 男便의 兄弟)도 없고 男便 친구도 없다. 지금 이 세 아이를 난 것은 우리 집에는 다만 마가리 바야구드

「四元, §11-18」 그 네 아들은 동분 멜겐 叔父를 친척으로 삼지 않고 업신여기며 떨어져 갔다. 될벤姓이 되어서 될벤 百姓 그들이 되었다. 그뒤 어느 날 도분 멜겐은 토호착 왼둘〔山〕 위에 사냥하러 올라갔다. 숲속에서 우량하이人이 세살〔짜리〕 사슴을 죽여서 그 肋骨, 그 臟腑을 굽고 있는 것을 만났다. 도분 멜겐은 말하기를 「친구여! 군 고기를!」〔하고〕 말했다. 「주자」고 말하며 그 肺臟이 있는 배의 가죽을 떼고 세살〔짜리〕 사슴의 고기 모두를 도분 멜겐에게 주었다. 도분 멜겐은 그 세살〔짜리〕 사슴을 〔말에〕 싣고 오는 길에, 한 가난한 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만나서, 도분 멜겐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마가릭 바야구타이, 궁해서 가고 있다. 그 짐승의 고기를 내게 주서오. 나는 이 아이를 당신에게 드리지요」〔라고〕 말했다. 도분 멜겐은 그 말에 세살〔짜리〕 사슴의 한쪽 다리를 부러뜨려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안에서 심부름을 시키며 살았다. 그런 동안 도분 멜겐이 죽었다. 도분 멜겐이 죽은뒤 아란 고아는 男子가 없이 세 아이를 났다. 부구 하다기, 부하투 살지, 보돈찰 뭉하이라는 이름이었다. 前에 도분 멜겐에게서 태어난 벨규뉴테이, 뷰규뉴테이 두 아들은 그 어머니 아란 고아 뒤에서 서로 말하기를 「이 우리들의 어머니는 兄弟인 房親人(傍譯, 男便의 兄弟)이 없고 男子도 없는데 이 세 아이를 났다. 집안에는 다만 마가릭 바야구다이의 아이가 있다.

(1) aγusgai: cf. Mo aγusgi

[4] ger-ün kümün-eče öbere-e kümün ügei tula tegün-ü ki bui-y-a gemen sejiglen gelelčijü büküi-yi tegün-ü eke medečüküi. qabuγ čar-un nigen edür. tegün-ü eke along γou-a miqa činaǰu tabun köbegün-iyen taγutan iregülǰü ǰiγdalan[1] saγulγaγud. tosbuiri nijiged sumjun-u mösü-yi ögčü qorol gemegsen-dur čöm qoγolabai. dakin tabun sumun-u mösü-i neyilegülügsen qoγol gemen öggügsen-dür tabuγula ken ču qoγolan ese čidamui. ene učir-tur eke inu üggüler-ün. biligünetei bigünetei ta qoyar köbegün ene γurban köbegün-i segǰiglejü aqu anu basa ču mön bolai. γaγča kü tngγi-eče söni büri čaγan sira ǰisutai cümün ger-ün dunu-bar[2] oroǰu iregüd minu gedüsün-i ilekü-dür tegün-ü gerel gebelin-ü dotar-a nebteren oroju egün-eče sayi bey-e siltaγantai bolǰu ene qadun köbegün-i töröčüküi. ta ene učir-i ülü medekü bolba. qoyisi. temei buu ügüle. egün-iyer üǰibesü ilergei-e[3] tngri-in köbegün bolutai. eng-ün kümün-lüge adalitγaǰu ülü bolumui. qojim-dur tara bar qaγan oron-a saγubasu sayi-a medemüi-y-a along γou-a eke inu basa saγan ügüler-ün. ta tabun köbegün čöm min-u nigen gedüsün-eče törögsen bülüge tabuγula sanaγ-a neyilen yabubasu mön uridakai[4] dabun sumun-i neyilegülkülüge adali. gerbe anggiran salaǰu[5] nige nige yabuqu bolbasu γaγča sumun-luγa adali tula. ken ču bolba kilbarqan-iyar qoγolumui üneger nigen sedgil nigen erden-i barimtalaǰu qarilčin tusalaǰu qarilčin inaγlaqu-gi gereg bolγabasu tabun sumun-i qamdudγaqu-ača neng badu tula

집 사람 以外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의 증거가 아니냐고 의심하며 말하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알았다. 봄철 어느 날 그의 어머니 아롱 고우아는 고기를 삼고 네 아들을 불러 들여 가지런히 앉히고 各自에게 하나씩 화살을 주고 「분지러라!」고 말함에 모두들 분지렀다. 다시

다섯 화살을 合친 것을 「분지러라!」고 말하며 줌에 다섯 〔사람〕은 아무도 분지르지 못했다. 이런 연고로 어머니는 말하기를 「비리규네테이, 바규네테이 너희들 두 아이들아! 이 세 아이를 의심하는 것은 또한 옳다. 그런데 하늘에서 밤마다 白黃의 아름다운 사람이 집 천장문으로 들어와서 내 배를 쓰다듬을 때, 그 빛은 배속까지 뚫고 들어, 이 때문에 지금 몸은 임신을 해서 이 皇后는 이 아이를 났다. 너희들은 이 연유를 모르고 있다. 그러나 뒤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면 分明히 하늘의 아들이다. 보통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뒤에 汗位에 오른다면 곧 알 것이 아닌가」 아롱 고우아 어머니는 다서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들 다섯 아이는 모두 나의 한 배에서 태어났다. 다섯이 뭉치면 곧 앞의 다섯 화살과 같다. 萬一 〔서로〕 떨어져서 하나 하나가 간다면 한 화살과 같기 때문에 누구도 손 쉽게 꺾는다. 사실 한 마음 한 뜻을 삼고 서로 도와 긴밀함을 일삼는다면 다섯 화살을 묶은 것보다 더 堅固하기 때문에

(1) 「四元, §19」에서는 ǰergelen saγulǰu. 「德元」의 ǰiγdaldn은 ǰigdelen이 아닌가 생각된다. ǰigdele-는 「s'égadisei, être partagé également, être assorti également, être arrangé également」 (Kowalewski, Dictionnaire mongole-francais, p. 2358). 本橋에서는 「가지런히」로 飜譯해두었다.

(2) ger-ün tuna-bar: 「四元, §21」에는 ger-ün erüge dotoγa-yin gege'er (房의 天窓의 밝은 곳으로). 「德元」의 tuna는 Mo. toγunu(une ouverture en hant des tentes mongols pour la fumée et pour la lumière du jour; cheminée. Kowalewski, Dictionnaire, p. 1804). 즉 蒙古의 天幕에서 연기가 빠지거나 빛이 들어오게 뚫어 놓은 窓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3) ilergei-e의 -e는 副詞形成 接尾辭.

(4) uridakai: Mo. uridaki. 末音節에서 Mo. -ki가 「德元」에서 -kai로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도 같은 例가 보인다. aγuskai=Mo. aγuski (p. 3).

(5) sala-: Mo. salu-

[3-4] maγali bayaγud ger-ünkümün: 「四元」 ma'aliγ baya'udar kümün. gerün kümün는 「女子」(主婦)를 의미하는듯. Cf. mani Gerīī k'wn 《ma femme》 (A. Mostaert; Dictionnaire ordos, p. 26). 「四元」의 kümün은 그 傍譯에서는 「人」 그리고 漢譯에서는 「家人」으로 飜譯하고 있는데 대해서 「德元」에서는 kümün앞에 ger-ün을 더 補充하고 있다. 이것은 「四元」의 ma'aliγ baya'adai kümün만으로는 그 意味가 不分明하기 때문에 ger-ün을 더 揷入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마가리 바야구드의 妻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데」라는 것.

[5] tan-u aqa degüü-yi ken ayumsiγ ügei qoltan čidaqu ǎǰiγu gemen ǰakičuqui.

degün-ü qoyina eke inu along γou-a nasun-ača nögčibai.

ǰiči eke inu ögügsen-ü qoryin-a aqa degüü tabuγula-in ger-ün öbell-i biligünetei, bigünetei, buγu qataki. buγu salǰiγu dörbegüle qubiyan abubai. bodančir öčügen baγurai tula teyin kü degüü-in toγan-dur ülü bodun bičiqan ču yaγum-a qobiǰan ese ögčükü. bodančir aqa-nar-yien üǰibesü[1] tegün-ü bey-e-yi degüü gemen ülü sanaqu tula dotora-ban ögüler-ün bi ende saγuǰu yaγurimui. dura bar yabuǰu ögübesü ögütügei amiturabasu amituratuγai gemen nigen boγoral büged daγaritu doγotur morin-i unuǰu onon γool-un kübege-ber ögetalen yabuǰu baltun ese genem neretü γaǰar körüged ebesün-iyer embül ger bayiγulun saγučuqui. teyin-ü saγun büküi-dür bodančir nigen boroγčin qaγčaγai qar-a quru meretü nuγusu bariǰu iden bütüi-yi üǰiged darui arγa boduǰu morin-u segül-iyeγ uraγ-a kiǰü qarčaγai-yi bariǰu tejigebei. bodančir angqa-daγan idekü yaγum-a uldaqu ügei aγula-in yabsar taki kürügesün-i qarbuǰu idekü ba esegül-e činu-a-in idegsen üledesü-yi[2] olju iden. basa qarčaγai

ban tejigemüi. ene medü-ber nigen ebül-i önggerebei qabur-un čaγ bol-uγsan-a. noγusu γalaγuu čöm irekür-dür bodančar tegün-ü ülüsgüleng qarčaγai-dur talbiǰu nuγusu γalaruu-yi bariγulun egünče idejü baraqu ügei modun-a elgüγü

너희 兄弟를 누가 敢히 범할 수 있느냐」고 타일렀다.

그뒤 그의 어머니 아롱 고우아는 죽었다.

다서 어머니가 죽은 뒤에 兄弟 다섯의 家産을 비리규네테이, 비규네테이, 부구 하다기, 부구 살지구 넷이서 나누어 가졌다.

보돈칠은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故로 동생의 數에 헤아리지 않고 조금도 나누어주지 않았다. 보돈칠은 그의 兄들을 보고 그의 몸을 아우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內心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살아서 무엇하랴? 멋대로 가서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자!」고 하며 한 紅沙〔馬〕의 등에 상처 있는 (靭傷) 말을 타고 오논江의 江邊을 따라서 올라가서 발룬이사라는 이름의 곳에 到着해서 풀로 草家를 짓고 살았다. 그가 살고 있을 때, 보돈칠은 한 새끼 매가 하라 후루라는 이름의 따오기를 잡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곧 꾀를 내서 말의 꼬리로 키를 만들어서 매를 잡아 키웠다. 보단칠은 처음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溪谷에 있는 짐승을 쏘아 먹거나 혹은 늑대가 먹고 남은 것을 찾아 먹었다. 또 매를 키웠다. 이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났다. 봄 철이 되어서 오리〔와 기러기〕가 모두 왔을 때, 보단칠은 그의 굶주린 매를 풀어서 오리〔와 기러기〕를 잡게 하고 이것을 먹어버리지 못하고 나무에 걸어 놓고[3]

(1) üjibesü: Mo. üǰebesü cf. [2](2)참조.

(2) üledesü: ülede-ši. -ši는 to form nouns designating result or object of an action (N. Poppe: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p. 49).

(3) 「四元, §27」 봄이 왔다. 오리가 올 때, 매를 굶주려서 풀었다.

오리와 따오기를, 죽은 나무에 썩을 냄새가, 마른 나무에 惡奧가 날때까지 버려두었다. 〔漢譯〕 飛放拿得鵝鴨多了. 喫不盡. 掛在各枯樹上都奧了. 위의 「四元」原文에서의 飜譯과 漢譯을 비교해보면 「德元」은 漢譯을 飜譯한 것이 分明하다. 그것은 「四元」의 原文에 難解한 語句가 있기에 이것을 漢譯과 같이 解釋하는 것이 理解하기 容易하기 때문이다.

[6] ümügerigsen inu masi olan bolčuqui.

tüilen neretü aγuta-ü aru-du nigen bülüg negüdel-ün arad. tenggelig-ün γoul-un kübege-dür saγun büküi-e. bodončir edür büri qarčaγai talbiǰu yabuqui-daγan anu arad-ača su kid čige γoyoǰu uyun. söni bolbasu egüsün ger-degen qariǰu qonumui. tere negüdel-ün arad bodnčar-un sira qačaqai-yi abqu-yi erimelǰibečü bodončar ondu öggügsen ügei büged. ken alin-u ner-e oboγ-iyen basaču asaγuγsan ügei aǰiru[2] aya kü saγuǰu mön udačuqui.[2]

nigen edür bodončir-un aqa boγo qadagi genette degüü-ben sanaǰu onon γoul-un kübege-yi daγaǰu erin yabuγsaγar tenggelig γoul-un kübege-dür kürüged. terekü negüdel-ün arad-ača asaγuγun. tayimü mori umuγsan küimün-i üǰibeü kemen asaγuγsan-dur tedege, ügülerün. čin-u gelegsen teyimü moritai tayimü bayidal-tai kümün tasiy-a ügei mön büged basa sira qarčaǰai talbiǰu edür bolbasu irejü bidan-ača su čige abču uuγumui söni bolbasu qamiγ-a qonoγlaqu-yi ülü mede-müi. γaγčakü baraγun qoyin-ača salkilabasu γalaγun nuγusun-ü ödü ungγasu časun medü geyisün irekü tula sanabasu baraγun qoyin-a saγun amui-y-a. edüge tegün-ü edür büri-in irekü čaγ bolba ta bičiqan küliyesü kemetele udaγsan ügei nigen kümün kürču irebe. üǰibesü bodončir mön aǰiru. aq-a inu degüü-ben taniǰu taγaγulan yabu-bai. bodončir qoyina-ača taγaǰu aya kemen

석은 것이 매우 많아졌다.

듀이렌이라는 山뒤에 一群의 遊牧民이 텡게릭 江邊에 머무르고 있을 때 보단칠은 날마다 매를 날리며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젖과 乳酒를 청했다. 밤이되면 그의 草家에 돌아가서 잤다. 그 遊牧民은 보단칠의 黃色 매를 가질 것을 원했고 보단칠은 주지 않았다. 또 어느 누구의 이름 姓氏인가를 묻지 않았다.

어느날 보단칠의 兄 보고 하다기는 忽然히 동생을 생각하고 오논 江邊을 쫓아 가서 텡기릭 江邊에 이르렀다. 그 遊牧民에게 묻기를 「이런 모양을 하고 이런 말을 탄 사람을 보았는가?」고 물음에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이 말한 그런 말을 탄 그러한 모양을 한 사람이 틀림 없이 바로 그 사람이며 또 노란 매를 날리며 낮이 되면 와서 우리에게 젖과 乳酒를 얻어 먹고 밤이 되면 어디서 자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西北에서 바람이 불면 오리와 기러기의 털이 눈처럼 날리오기 때문에 생각하면 北〔쪽〕에 있을 것이다. 지금 그가 날마다 올때가 되었다. 「당신 조금만 기다리서오!」라고 말 할 때, 말 타지 않은 사람이 다가왔다. 보니 보단칠 바로 〔그사람〕이다. 兄은 아우를 보고 (뒤)따르게 하고 갔다. 보단칠은 뒤따르며 「아!」하며

「四元, §28-33] 듀이렌〔山〕 뒤에서 둥게릭江에 따라서 一群의 百姓이 移動하며 왔다. 보든찰은 그 사람들에게서 노란 매를 날리며 가며 낮에는 말젖(馬乳)을 〔얻어〕 마시고 밤에는 草家의 房에 와서 留宿했다.

그 사람들은 보돈찰의 노란 매를 請했으나 주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보돈찰이 어떤 누구인가를 묻지도 않고 〔또〕 보돈찰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서로 묻지 않고 지냈다.

부구 하다기인 그의 兄은 그의 보돈찰 뭉학이라는 동생이 이 오논江에 따라갔다고 물어 왔으며 둥게릭江에 따라서 移動해온 사람들에게 「이러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말을 가지고 있다」고 묻기에 그 사람은 말하

기를 「사람도 말도 당신이 묻는 것과 같다. 노란매를 가진 이가 있고 낮에는 우리에게 와서 말젖을 마시고 간다. 밤에는 어디선지 간다. 西北에서 바람이 불면 노란 매로 잡은 오리와 기러기의 털이 휘날리는 눈과 같이 흐터져 온다. 여기 가깝게 있다. 지금 올 때가 되었다.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다.

잠시 있다가 퉁게릭江 위에 한 사람이 오고 있었다. 到着해 온즉 보돈찰 그였다. 그의 부구 하다기 兄은 보고 알고 〔그를〕대리고 오논江 위에 말타고 가서 놓아 주었다.

보손찰은 부구하다기 兄뒤를 따라가며 말하기를

(1) erimeljibečü: 辭典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것은 eri-mel-ji-로 分析이 가능하다. -mel은 deverbal noun을 形成하는 接尾辭. 여기에 다시 denominal verb를 形成하는 接尾辭가 添加된 것으로 分析된다. 語根 eri-는 「四元 §29」의 huyu- 「索」와 意味上 關聯이 있다.

(2) aya kü saγuǰu mön udačuqui: 意味不明. 「四元」에는 該當語句 없음

[7] ügeler-ün kümün-ü bey-e-dür doloγaitai bolbasu sayin. debel qobačasun-dur yaqatai bolbasu sayin kemegsen-dür aqa inu daγun ese γarbai. bodančir uridakai[1] üge-ben dakin dakin gelegsen-dür aqa inu asaγur-un či bayin bayin-yiar aya kü gelekü inu yambar sanaγ-a kemegsen-dür bodančir ügüler-ün uridqan tenggelig-ün γoul-un kübege-dür saγuγsan tere nigen bülüg arad-tur tobčiyalan qamiyaraqu eki doloγai ügei. yeke baγ-a nigen adali. eǰilen abqui-dur masi kilber kemegsen-dür aq-a inu ügüler-ün teyimü bolbasun ger-de qariǰu aq-a degüü bügüdeger ǰübteǰü darui boliyan abubasu ǰukimui kemen gerdegen qaγirsan-u qoyin-a aq-a degüü qoγorundu-ban ǰübleldüged.[2] bodančir terigün dorsiγulči bolbai. bodančir terigün-dür yabuǰu teden-ü nigen ǰirmusun eke-ner-i barimtelen abču či yambar kümün bui kemen asaγsan-dur

tere eke-ner üčir-ün. bi bolbasu yarčamud adaγulan qaǰin-u kümün bile kemečükü̈i. tede busu arad-i anu teden-u aq-a degü̈ü tabuγula boliyan abŏu irečükü̈i. egünče ama dumuγai[3] ču bui čai budaγ-a ǰaruqu kümün čöm bui. tere ǰirmusun eke-ner-i bodančir gergei bolγan abubai. qoyin-a nigen köbegün törögsen-i kemekü̈i. qoyin-a ǰidasatai oboγtai-u degedüs bolčuqui. tere ǰaǰisatai-in köbegün-ü nere toqonatai. tegün-ü köbegün boručiluu. tegün-ü köbegün qaraγtai. tegun-ü köbegün. ǰamuγ-a darui ǰatalan oboγtan bolčuqui. bodančir-un gergei-eče basa nigen köbegün törögsen-i ner-e baγaritai kememü̈i. qoyin-a baγarin oboγtan-u[4]

말하기를 「사람의 몸에는 머리가 있으면 좋다. 옷에는 깃이 있으면 좋다」고 말함에 兄은 말하지 않았다. 보단칠이 몇 번이고 말함에 그의 兄은 묻기를 「너는 여러번 "아!"라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냐?」고 말함에 보단칠은 말하기를 「전에 뎅게릭江邊에 있던 그 一群의 사람들에게는 통솔하는 우두머리가 없었읍니다. 크고 작은 〔것이〕 하나 같읍니다. 統治해서 갖은 것이 매우 쉽습니다」고 말했다. 兄은 말하기를 「그렇다면 집에 가서 兄弟 모두 相議해서 곧 뺏어 갖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집에 돌아온 뒤에 兄弟가 議論했다. 보단칠은 首領이 되었다. 보단칠은 그들에게 가서 한 임신한 婦人을 묶어 데려와서 「너는 어느 사람이냐」고 물음에 그 婦人은 대답하기를 「저는 얄차누드〔族〕 아다구란〔氏〕의 하진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 사람들은 그의 兄弟 다섯이서 빼앗아 데리고 돌아왔다. 여기에는 〔 〕과 茶飯과 부리는 사람이 모두 있었다. 그 임신한 婦人을 보단칠은 아내로 삼았다. 뒤에 한 아들이 태어난 것을 쟈지시다이라고 부른다. 뒤에 쟈지시다이 姓의 遠祖가 되었다. 그 쟈다사다이의 아들의 이름이 토호나다이이고, 그의 아들은 부루치루, 그의 아들은 호락다이, 그의 아들은 쟈미가〔이며〕 곧 쟈다란姓이

되었다. 보단칠은 妻에게서 또한 아들이 태어난 것의 이름을 바가리타이라고 부른다. 뒤에 바기리姓의

「四元, §33-41」「兄! 兄! 몸에 머리가 있고 옷에 깃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고 말했다. 그의 兄 부구 하다기는 그의 말을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았다.

또 그 말을 해도 그의 兄은 아무렇게 여기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 보돈찰은 가서 또 그 말을 했다. 그 말에 그의 兄은 말하기를「前부터 무슨 말을 하는가? 너는!」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보돈찰은 말하기를「지금 퉁게릭江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작고 나쁘고 좋고 머리도 발굽도 없이 〔모두〕 같다. 쉬운 사람들이다. 우리들이 그들을 잡자」고 말했다.

그래서 그의 兄은 말하기를「좋다! 그렇다면 집에 가서 兄弟들과 相議해서 그 사람들을 잡자」고 서로 말했다.

집에 가서 兄弟들과 서로 말해서 말을 탔다. 그 보돈찰을 前哨로 보냈다. 보돈찰은 前哨로 가서 임신한 婦人을 잡아서「어느 姓의 사람인가? 당신은!」하고 물었다. 그 婦人은 말하기를「잘치우드 아당한[의] 우리양가진입니다. 저는!」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들을 兄弟 다섯이서 잡아서 馬群 茶飯 家人의 종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 임신한 婦人은 보돈찰에게 와서 아이를 낳았다.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고하여 자지라다이라고 이름지었다. 자지라다이의 始祖가 되었다. 그자지라다이의 아들은 튜큐규대이라는 이름이었다. 튜큐규대이의 아들은 부리불치루이다. 부리불치루의 아들은 하라하다안이다. 하라하다안의 아들은 자무하이다. 자다란 姓이 되었다.

그 婦人은 또 보돈찰에게서 한 아들을 낳다. 잡아 삼은 女子라 하여 그아들을 바아리다이라고 이름지었다. 바아린의 始祖가 되었다.

(1) uridakai: Mo. uridaki. p. 7에도 同一한 語形이 보인다. p. 4, (4)

참조. 語末音節 -ki를 -kai로 表記한 것은 이 文獻이 記錄된 地方의 綴字上의 어떤 慣習인가?

(2) ǰübteǰü: Mo. ǰübleltüǰü.

(3) ama dumuγai: 意味不明.

(4) 本句節의 人名表記의 差異가 「四元」과 「德元」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ǰaǰisadai: 〔四元〕 ǰaǰiradai

ǰadasadai: 〔四元〕 ǰadaran

tuqunadai: 〔四元〕 tügüd'üdei

buručiluu: 〔四元〕 büribülčirü

qarardai: 〔四元〕 qaraqaba'an

ǰamuγ-a: 〔四元〕 ǰamuha

baγaridai: 〔四元〕 ba'aridai

baγarin: 〔四元〕 ba'arin

〔8〕 degedüs bolčuqui. baridai-in köbegün čuγdai gülübüige. čuγdai gülübüige-in abuγsan gergei alan-u tula köbegün basa alan töröčükü. teyin kü munan baγarin kemekü oboγtai bolčuqui.

biligünedei. biligüned oboγtai bolčuqui.

bigünedei. bigüned oboγtan bolčuqui.

buγu qadaki. qadakin oboγtan bolčuqui.

buγu salǰiγu. salǰinud oboγtan bolčuqui.

bodančir borčiged oboγtan bolčuqui.

bodančir basa nigen gergei abču törögsen köbegün inu baγarin esidü qabiči kemekü. tere qabiči-in eke-yi daγaǰu iregsen eme-yi bodančir tadabur em-e bolγan abuγsan-u qoyin-a nigen köbegün törögsen-i ǰunuridai kemen nereyidčuqui.

bodančir bayiqu čar-tuγ tegün-ü köbegün kemeǰü qamtu tayitγa dakilγa-yi küičidgen[1] bülüge. bodančir ügügsenü qoyin-a baγarin esidü qabiči-bar ǰonoridai-yi aq-a degüü-yin duγan-dur ülü sanan ügülekü[2] anu ger-dür be eng-ün gereg-tür uu leng qadai oboγtan inaγsi činaγsi yabudaγ bile[2] lab tegün-ü köbegün bolai kementayiqu dakiqu-in čar-tuγ kügen γaraγtaγ[3] aǰiγu. qoyn-a ǰonorin oboγtan bolčuqui.[4]

首領이 되었다. 바가리다이의 아들은 축다이 규류뷰이게이다. 축다이 규류뷰이게는 妻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도 또 많이 났다. 그러므로 무난 바가린이라고 하는 姓이 되었다.

비리군네데이는 비리군네드의 姓이 되었다.

비규네데이는 비규네드의 姓이 되었다.

부구 하다기는 하다기姓이 되었다.

부구 살구지는 살지누드 姓이 되었다.

보단칠은 볼치게드의 姓이 되었다.

보단칠은 또 한 아내를 데리고 낳은 아들이 바가린 에시듀 하비치라고 한다. 그 하비치의 아네을 따라 온 女子를 妾으로 삼은 뒤 한 아들이 태어난 것을 쥬누리다이라고 이름지었다.

보단칠이 生存해 있을 때는 〔쥬누리다이를〕 아들이라고 하여 함께 제사도 올렸다. 보단칠이 죽은 뒤에는 바가린 에시듀 하비치는 죠구라다이를 兄弟의 數에 넣지 않고 말했다. 〔 〕 반드시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제사를 올릴 때 〔 〕뒤에 조노린 姓이 되었다.

〔四元, §41—44〕 바아리다이의 아들은 치두훌 뵈쾨, 치두훌 뵈쾨의 妻는 많았다. 그의 아들도 많이 태어났다. 메년 바아린 姓이 되었다.

벨규뉴다이는 벨규누드 姓이 되었다. 부구 하다기는 하다긴 姓이 되

었다. 부하두 살지는 살지우드 姓이 되었다. 보돈찰은 볼지긴 姓이 되었다.

보돈찰이 얻은 妻에게서 태어난 것은 바린 시이라두 하비치라는 이름이었다. 그 하비치 바아들의 어머니의 종으로 온것을 보돈찰이 妾으로 삼았다. 한 아들이 태어났다. 제우레다이라는 이름이었다. 제우레다이는 앞서 祭祀에 들어갔다(祭祀에 참석했다).

보돈찰이 죽은 뒤, 그 제우레다이는 「집에 아당하 유리앙하다이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祭祀에서 나와 제규레이드의 姓이 되어 제레드의 始祖가 되었다.

(1) küičidgen: 意味不明

(2) 「四元 §44〕 ger dalu'a adangha uryanghadai kügün alu'a tegün-ü'ei bui-ǰa (漢譯 : 在家常川小有阿當合几良合夕人氏的人往來. 莫敢是他的兒子). 「德元」 anu ger-dür be eng ün gereg-dür uu leng qadai oboγtan inaγsi činaγsi yabudar bile la tegün-ü köbegün bolai. 이 兩者를 比較해보면 「德元」의 句節이 「四元」의 漢譯文에서 蒙譯된 것임을 一見하여 알 수 있다. 特히 「四元」에서 alu'a의 傍譯이 「往來」이며 또 漢譯에서도 같다. 이것을 「德元」에서 inaγsi činaγsi yabudar으로 漢譯하고 있는 것이 註目된다. 또한 「德元 p. 3〕에서 〔四元의〕 uryanghadai를 uryangqai으로 表記하고 있는데, 이것은 同一한 人名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것이 「德元」의 本句節에서는 uu leng qadai로 表記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 「德元」의 表記가 「四元」의 漢譯表記를 그대로 蒙古語音으로 寫音한 것임이 틀림 없다.

이 「德元」의 句節은 다음과 같이 解釋된다 : 그의 집에서 平常事에 우량하다이 姓人이 거기 往來했다.

(3) kügen rarartar : 意味不明

(4) 本句頭에 나타난 人名은 「德元」과 「四元」에서 다음과 같은 差異

가 있다.

cuγdai gülübüige : 〔四元〕 čiduhul bökö

biligünedai : 〔四元〕 belgünüdai

munan baraγin : 〔四元〕 menen ba'arin

biligüned : 〔四元〕 belgünüd

bigünedei : 〔四元〕 bügünüdai

buγu qadagin : 〔四元〕 buhu hadagi

buγu salǰiγu : 〔四元〕 buhutu salǰi

barin esidü qabrči : 〔四元〕 barim si'iratu habiči

ǰunuridai : 〔四元〕 ǰe'üredei

〔9〕 qabiči-in köbegün munayidudun. munayidudun-ača doloγan köbegün töröčüküi.

nigen-ü ner-e qačačuluγ.

nigen-ü ner-e qačin.

nigen-ü ner-e čino-a.

nigen-ü ner-e qačusa.

nigen-ü ner-e qačabun.

nigen-ü ner-e qarγdai.

nigen-ü ner-e načinbatur.

qačačaluγ-in köbegün-ü ner-e qayidu. tegün-ü eke-in ner-e namurul.

qačin-ü köbegün ner-e nayaǰidai. nayaǰidai bolbasu ǰang aγali eyeberkü[1] büged. tüsimel-ün bayidal γarγaqu tula derüi nayala oboγtan bolčuqui.

čino-a-in köbegün ner-e barasudai bolbasu törogsen bey-e inu yeke büged idekü uuγuqui anu ülemǰi tula egünče baras oboγtan bolčuqui.

qačusa-in köbegün iči kememüi. čai budaγ-a-yi doγsin-yier taγutamui

dayin kü yeke baras baγ-a baras kemečüküi.[2]

하비치의 아들은 무나이두둔. 무나이두둔에서 일곱 아이가 태어났다.

한 〔아들〕의 이름은 하차추룩.

한 〔아들〕의 이름은 하친.

한 〔아들〕의 이름은 치노아.

한 〔아들〕의 이름은 하추사.

한 〔아들〕의 이름은 하차분.

한 〔아들〕의 이름은 하룩다이.

한 〔아들〕의 이름은 하친바툴.

하차추룩의 아들의 이름은 하이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무룰.

하친의 아들의 이름은 나야지다이. 나야지다이는 性品이 〔 〕官人의 태를 내기 때문에 노야킨 姓이 되었다.

치노아의 아들의 이름 바라수다이는 태어난 몸이 크고 먹고 마심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스 姓이 되었다.

하추사의 아들은 이치라고 부른다. 茶飯을 포악하게 먹기 때문에 어케 바라스 바가 바라스(大바라스 小바라스)라고 부른다.

〔四元, §45—46〕 하비치 바아툴의 아들은 메넨 투둔이었다. 메넨 투둔의 아들은 하치 큐룩, 하친, 하치우, 하추라, 하치운, 하란다이, 나친 바아툴 일곱이었다.

하치 큐룩의 아들 하이두는 누무룬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하친의 아들은 노야기다이라는 이름이었다. 官人처럼 뽐내는 性品이기 때문에 노야킨 性이 되었다. 하치우의 아들은 바루라다이라는 이름이었다. 큰 몸으로 먹는 것에 사나웠다. 바루라스 姓이 되었다. 하추라의 아들은 먹는 것에 사나웠기 때문에 에케 바루라 유츄겐 바루라라고 이름지어 바루라스 姓이 되었고 엘뎀투바루라 퇴되엔 바루라를 우두머리로 한 바루라스로 그들은 되었다.

(1) eyeberk : 「四元」에는 여기 該當하는 表現이 없다. (nayaǰidai bolbasu ǰang aγali eyeberkü). 그리고 eyeberkü는 意味不明.

Ch. khuen (la puissance active de la terre), nom d'une ligne dans un livre divinatoire chez les Chinois. (Kowalewski: Dictionnaire, p. 227).

(2) 人名의 差異는 다음과 같다.

munayitudun : 〔四元〕 menen tudun

qačačuluγ : 〔四元〕 hačikülüg

čino-a : 〔四元〕 hačiu

qačusa : 〔四元〕 hačula

qačabun : 〔四元〕 hači'un

qarγdar : 〔四元〕 harandar

namurul : 〔四元〕 nomolun

barasudai : 〔四元〕 baruladai

baras : 〔四元〕 barulas

yeke baras baγa baras : 〔四元〕 yeke barula üčügen barula

〔10〕 ǰiči basa eremdü baras todoy-a baras ene dörben ner-e-ber oboγ bolγačqui.

qarandai-in köbegün bolbasu boluγsan buduγa-yi demčiǰü degedü duuradu-yi ilγaqu ügei-in tula budanai oboγtan bolčuqui.[1]

qačabun-u köbegün adardai bolbasu aq-a degüü-in dotura-yi ǰuriγu-dan[2] kümün tula darui adarčin oboγtan bolčuqui.

načinbatur-ača qoyar köbegün töröčüküi nigen-u nere-yi nulunudai kememüi. nigen-ü nere-yi mongqudai kemeküi.

teyin kü nulunuǰai. mongquǰai qoyar oboγtan bolčuqui.

qayidu-ača γurban köbegün törögsen nigeö-ü ner-e singqur torsin

nigen-ü ner-e čaaγai lingqu.

nigen-ü ner-e čuuǰin ördegei.

singqur toγsin-ača nigen köbegün törögsen-ü nere-yi dumbanai sačin kememüi.

čarγai lingqu-ača nigen köbegün törögsen-ü nere-yi senggün bilig kememüi.

senggün bilig-eče törögsen köbegün-i ambaγai kememüi. darui tayičuγud oboγtan bolčuqui. čarγai lingqu bergen-yien(四元. berigen) gergei boluγa abubai.(3)

지치와 에렘두 바라스, 토도야 바라스이 네 이름의 姓이 되었다.

하랏다이의 아들은 죽(粥飯)을 싸우고 上下를 區別하지 않기 때문에 부다나이 姓이 되었다.

하차분의 아들 아달다이는 兄弟間을 〔 〕 사람이기 때문에 아달친 姓이 되었다.

나친바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다. 한 〔아들의〕 이름을 누루누다이라고 부른다. 한 〔아들의〕 이름을 몽후다이라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누루누자이, 몽후자이 두 性이 되었다.

하이두에게서 세 아들이 태어난 한 〔아들의〕 이름은 싱훌 독신.

한 〔아들의〕 이름은 차리가이 링후.

한 〔아들의〕 이름은 추진 왈대게이.

싱훌 독신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난 것의 이름을 둠바나이 사친이라고 한다.

찰가 이링후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난 것의 이름을 셍균 비릭이라고 한다.

셍균 비릭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암바가이라고 한다. 타이추구드 姓이 되었다. 찰가이 링후는 형수를 아내로 삼았다.

(1) 「四元 § 46」에는 qarandai-yin kö'üd buda'an qudqulaqu eki terigü ügegün tula(傍譯 : 人名 子每粥飯 攪的 腦 頭 無的每 上頭)이며 그 漢譯은 「合闌多的兒子, 爭粥飯無上下」와 같다. 그러므로 「德元」의 蒙文은 이 漢譯과 表現이 同一하다.

(2) 「四元 § 46」 aqa degü ǰa'ura adalurči tula.

漢譯 : 兄弟中間好間諜. ǰuriγudan: : 意味不明.

(3) 人名의 差異는 다음과 같다.

budanai : 〔四元〕 bada'd

adardai : 〔四元〕 adarkidai

adarčin : 〔四元〕 adargin

mulunudai : 〔四元〕 uru'udai

mongqudai : 〔四元〕 mongγudai

singqur toγsin : 〔四元〕 bayi šingqor toγsin

čaraγai lingqu : 〔四元〕 čara'ai lingγu

čuuǰin lingqu : 〔四元〕 čaǰin örtegei

tumbanai sečin : 〔四元〕 tumbinai sečen

senggün bilig : 〔四元〕 senggün bilge

〔11〕 basa nigen köbegün törögsen-ü her-e-yi bisündei kemekü küged darui bisüǰei oboγtan bolčuqui.

čuuǰin örtegei-eče ǰirγuγan köbegün töröbei.

nigen-ü ner-e orncor.

nigen-ü ner-e qongqudai.

nigen-ü ner-e sarul.

nigen-ü ner-e süniün.

nigen-ü ner-e qabtur qas.

nigen-ü ner-e geniges kememüi. enekü ǰirγuγan ner-e ber ǰirγuγan

oboγtan bolγačuqui. tumbanai sečin-eče qoyar köbegün töröčüi.

nigen-ü ner-e qubul qaγan.

nigen-ü ner-e sigsi čili.

sigsi čili-in köbegün bultayiču baγatur.

qubul-eče doγoran köbegün töröčükü i.

nigen-ü ner-e učin baraγal.(1)

또 한 아들이 태어난 것의 이름을 비슈데이라고 부르며 그러므로 비슈데이 姓이 되었다.

추우진 월데게이에게서 여섯 아들이 태어났다.

한 〔아들의〕 이름은 운누울.

한 〔아들의〕 이름은 홍후다이.

한 〔아들의〕 이름은 사룰.

한 〔아들의〕 이름은 슈니이윤.

한 〔아들의〕 이름은 합툴 하스.

한 〔아들의〕 이름은 계니게스람고 부른다. 여기서 질구가이라는 이름으로 질구간 姓이 되었다. 둠바나이 세친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다.

한 〔아들의〕 이름을 하불可汗.

한 〔아들의〕 이름은 식시 치리.

식시 치리의 아들은 불타이추 바가툴.

후불에게서 일곱 아들이 태어났다.

한 〔아들의〕 이름은 우친 바라굴.

(1) 人名의 差異는 다음과 같다.

bisüdei : 〔四元〕 besüdei.

bisüǰei : 〔四元〕 besüd.

čuuǰin örtegei : 〔四元〕 čaǰin örtegei.

ornoor : 〔四元〕 oronar.

qongqudai : 〔四元〕 qongγotan.

sarul : 〔四元〕 arulad.

süniün : 〔四元〕 sünid.

qabtur gas : 〔四元〕 qabturqa.

tumbanai sečin : 〔四元〕 tumbina sečen.

sigsi čili : 〔四元〕 šimsečüle.

bultayiču baγatur : 〔四元〕 bültečü ba'atur.

učin bararal : 〔四元〕 ökin barbaγ.

〔12〕 nigen-ü ner-e bartam baγatur.

nigen-ü ner-e qutuγtu mungqur.

nigen-ü nere qutula qaγan.

nigen-ü ner-e qulan.

nigen-ü ner-e qadanan.

nigen-ü ner-e todoǰang sečin.

nirebeγ-a-in köbegün qutuγtu ǰurǰi. qutuγtu ǰurǰi-eče qoyar köbegün töröčüküi.

nigen-ü ner-e sečebek.

nigen-ü ner-e tayiču.

tere ber ǰürči obortan bolčuqui.

bartambatur-eče dörben köbegün töröčüküi.

nigen-ü ner-e-gi menggetü ǰiǰin kemeküi.

nigeu-ü ner-e-gi nigün tayisu kemeküi.

nigen-ü ner-e-gi yisügei baγatur kemeküi.(1)

한 〔아들의〕 이름은 발탐 바가툴.

한 〔아들의〕 이름은 후툭투 몽훌.

한 〔아들의〕 이름은 후투라 可汗.

한 〔아들의〕 이름은 후탄.

한 〔아들의〕 이름은 하다난.

한 〔아들의〕 토도장 세친.

니레벨가의 아들은 후툭투 줄지, 후툭투 줄지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다.

한 〔아들의〕 이름은 세체베키.

한 〔아들의〕 이름은 타이추.

그래서 줄치 姓이 되었다.

발탐바툴에게서 네 아들이 태어났다.

한 〔아들의〕 이름을 멩게툰 지친이라고 한다.

한 〔아들의〕 이름을 니군 타이수라고 한다.

한 〔아들의〕 이름을 이슈게이 바가툴이라고 한다.

(1) 人名의 差異는 다음과 같다.

bartam baγatur : 〔四元〕 bartan ba'atur.

qutuγtu mungqur : 〔四元〕 qutuγtu münggür.

qadanan : 〔四元〕 qada'an.

todoǰang sečin : 〔四元〕 tödö'en ödčigen.

ǰürči : 〔四元〕 ǰürki.

bartam baγatur : 〔四元〕 bartam ba'atur.

menggetü ǰiǰin : 〔四元〕 möngetü kiǰan.

nigün tayisu : 〔四元〕 negün tayisu.